

summary

Intro) 정조, 금등문서 공개

- 정조, 영조가 봉인해 놓은 ‘금등문서’ 공개
- 정조 즉위하자마자 사도세자의 신원을 요구하는 상소 빗발침
『사도세자를 생각했다기보다는 정치적 의도 다수』

Body1) 사도세자의 비극, 개인의 불행을 넘은 정치적 불행

- 정조의 입장 : 사도세자의 비극은 개인의 가정사로 묻고 간다.
- 소론에게는 노론을 몰아붙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유성한의 상소 “왕이 경연을 계을리 하고 기생을 들여 놔다.”

Body2) ‘금등문서’ 공개의 결과는?

- 체제공의 상소 : 사도세자를 공식적으로 신원해야 한다.
- 정조, 사도세자의 일을 가정사로 묻고 간다는 기준의 태도를 뒤집고 ‘금등문서’를 공개

「금등문서」의 뜻

‘사도세자가 자신이 빨리 죽기 바랐다는 오해 때문에 아들을 죽이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억울한 죽음이었고, 나 영조는 이 일을 후회하고 있다.’

「오해」의 근원

사도세자는 정성왕후가 죽자 그녀가 그리운 마음에 지팡이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지팡이가 반란의 증거가 됨

- ‘금등문서’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잠잠해지지 않았고 정국은 여전히 불안했다.

Outro) 정조의 실수

- 유언비어는 오늘날에도 아주 큰 사회문제
- 소문은 상식으로 판별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그 기준
- 유언비어는 투명한 경영을 통해 이해관계가 둘로 갈리는 빌미를 제거해야 함
- 정조의 실수는 ‘금등문서’를 너무 빨리 공개

『영조는 이해관계가 청산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금등문서를 남김』

ward

『영조』

영조는 조선왕조 임금 중 경연(임금이 신하들과 유교의 경서와 역사를 공부하는 자리)을 가장 부지런히 한 임금이다. 왕이 중심이 되는 탕탕평평의 왕도정치를 펼치려면 임금이 신하들보다 한 수 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영조는 공부와 강론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사치를 경계하였고 민생을 위해 많은 개혁조치를 단행해갔다.

균역법을 시행하여 군역에 대신해 바치던 납포의 양을 1필씩 감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 시켜주었으며, 잔인한 형벌제도를 고치고, 양반들이 사적으로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을 금하였다. [속대전]을 편찬하여 [경국대전] 이후 변화한 세상에 발맞추어가지 못하는 법률을 재정비하였으며, 사치·낭비의 폐습을 교정하고, 농본정책을 펴 [농가집성] 등의 책을 널리 보급하는 등 민생안정에 힘을 썼다. 또한 청계천 등에 준천 사업을 벌여 홍수 때 범람을 막아 주거환경을 개선했으며, 신문고를 달고 궁성 밖 출입을 통해 백성들의 사정을 직접 듣고자 하였다. 영조 본인이 학문을 숭상하였기에, 학자들을 우대하고, 새로운 학풍을 진작시켜 이 시기 실학의 기틀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영조의 이러한 학문 우대 정책에 힘입어 인쇄술이 개량되고 많은 책이 간행, 보급되어 학문과 문화의 부흥기를 맞이하였다.

영조는 개인사적으로는 콤플렉스와 지독한 불행에 시달린 인물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자신의 고통에 휘둘리지 않고 이를 현명하게 승화시켜 민생을 안정시킨 임금이었다. 영조 대에 마련된 안정을 바탕으로 그의 손자 정조는 더욱 큰 선정을 베풀 수 있게 되었다. 영조와 정조 두 임금의 시대를 보통 조선후기 중흥기라고도 부른다.

출처 : 네이버캐스트

『정조』

11세 때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은 이후 할아버지인 영조에 의해 요절한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되어 왕통을 계승하였다. 1775년부터 1776년까지 할아버지 영조를 대신하여 대리청정을 하였다. 1776년 영조의 승하로 즉위하여 1800년까지 조선의 제22대 국왕으로 재위하였다. 재위 초기 홍국영에게 막강한 실권을 주는 세도 정치를 하였으나 1780년 홍국영을 실각시킨 뒤로는 친정을 하였다.

즉위 후 정약용, 채제공, 안정복 등을 등용, 권력에서 배제된 소론과 남인계 인사들을 등용 하여 정계로 다시 발탁하는 동시에 노론 벽파의 원칙론자인 스승 김종수와, 이미 사망한 유척기의 문하생들을 각별히 중용하였다. 노론이 생부 사도세자의 죽음과 연계되었다 하여 노론, 특히 벽파와의 갈등이 후일 예술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정조는 벽파의

당수인 김종수, 심환지 등을 총애하여 측근으로 두었다.

재위기간 중 왕권강화를 위한 노력에 치중하였으며, 친위부대인 장용영의 창설과 자신의 저서 『재전서』를 비롯한 문집과 법전의 재간행, 수원 화성 축성 등을 추진하였다. 무예와 함께 유학의 각 경전에도 두루 통달하여 경연장에서 신하들을 강의하기도 했다고 한다. 조선 후기의 중흥군주로 평가된다. 하지만 흥국영을 기용하여 측근 가신에 의해 정사가 좌우되는 폐단을 남기기도 하였으며, 승하 직전에 안동김씨 김조순의 딸을 세자빈으로 삼음으로써 세도 정치의 씨를 뿐렸다. 박지원 등의 진보적 문장에 반대하여 문체반정과 같은 필화 사건을 일으켰고, 서인의 성리학자이자 예학자인 우암 송시열을 존경하여 그를 송자(宋子), 송부자(宋夫子)로 성인의 반열에 올리고 국가의 스승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출처 : 위키백과

『금등지사』

금등지사(金縢之詞)란 억울함이나 비밀스런 일이 있어 후세에 이를 밝혀 진실을 알게 하는 문서를 말한다.

출처 : 위키백과

『영조의 금등지사』

血衫血衫(혈상혈상)

피 묻은 적삼이여 피 묻은 적삼이여

桐兮桐兮(동혜동혜)

오동나무 지팡이여 오동나무 지팡이여

誰是金藏千秋(수시금장천추)

누가 안금장과 찬천추같은 충신인가

予懷歸來望思(여회귀래망사)

내 죽은 자식을 그리워하고 있노라

영조는 당시 노론의 모함으로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게 하였는데, 훗날 그 일을 후회하며 금등지사를 썼다. 이로 인해 노론과 소론이 대립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정조와 신료들의 갈등도 빚어졌다. 금등지사를 입수해야만 죄인 신분으로 죽은 사도세자의 무죄를 입증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정조의 정치적 권위를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조는 금등지사를 바로 공개하지 않고 후세에 남기도록 했다. 따라서 이를 사도세자의 신위를 모신 사당인 수은묘(垂恩墓) 내부에 보관하도록 했다. 정조 17년(1793) 8월 8일자 <정조실록>에는 정조가 금등지사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대목이 있다.

출처 : 위키백과

『경연』

임금에게 유학의 경서를 강론하는 일.

『노론과 소론』

조선 후기에 서인으로부터 나누어진 당파. 경신대출척 이후 남인에 대한 처벌을 놓고 서인이 강·온 양 파로 분리되면서 발생했다. 강경 입장을 취한 사람들은 주로 노장층이었으므로 노론, 온건 입장을 취한 사람들은 소장층이었으므로 소론이라고 한다. 1683년 노장파인 김익훈(金益勳) 등이 남인을 강력히 탄압하자 소장층인 한태동(韓泰東) 등이 이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것이 직접적인 발단이었다. 소론이 남인의 탄압에 온건한 입장을 취한 것은 만약 남인이 재집권하게 되면 보복이 있을 것을 염려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노론과 소론의 대립은 한때 송시열의 문인이었던 윤증(尹拯)이 송시열과 절교하고 난 이후 양자 사이의 개인적 감정과 정치적·학문적 갈등도 하나의 원인이었다. 초기 노론의 영도자는 김익훈·송시열 등이었으며, 소론의 영도자는 조지겸(趙持謙)·윤증 등이었다. 이후 당쟁은 주로 노론과 소론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출처 : 한국고중세사사전

issue

1. 사도세자 사건은 드라마 '비밀의 문' '이산' 등에서 상당히 미화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역사적인 사건이 드라마, 영화 등의 매체를 통해 미화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재미와 흥미를 위해 매체에서 역사가 왜곡되는 것이 어느 정도 선까지 허용이 되어야 할 것인지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2.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혹독한 교육으로 인해 정신병을 얻게 됩니다. 한국사회에서 정신병에 대한 시각이 좋지 않으며, 육체적인 병과는 달리 동정보다는 '미친사람'으로 취급받으며 격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며, 정신병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들을 나누어 봅시다.

reference

영조, 그는 왜 아들을 죽였는가?

42세, 아들을 얻다



중학생이 되며 운동에 빠진 세자

조선은 문치주의였고 영조는 문文을 숭상한 왕이었으나 세자는 무예에 빠진다

15세, 대리청정을 시작하다

대리청정 : 조선 시대에 임금의 허락을 받아 임금의 정치 등 여러 일을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동궁 저하께서 어린 나이에 대리하여 수용이 다 합당하고 정령의 사이에 또한 일찍이 성상의 뜻을 우러러 몸 받지 않음이 없으니 신은 일찍이 찬탄하였는데, 전하(영조)께서는 매우 지나치게 책망을 하십니다.”

- 김재로(당시 영의정), 영조 27년

사도세자, 미치다.

의대증 : 옷을 잘 입지 못하고 잘 벗지 못하는 일종의 강박증.

“1760년 이후에는 내관 내인 중에 다치고 죽은 것이 많으니 다 기억하지 못하되, 드러난 것은 내수사 서경달이라. (...) 그 때 내관들이 여럿 상했고, 선희궁 내인도 하나 죽으니, 점점 어려운 지경이라. (...) 점치는 맹인들도 점을 치다가 말을 잘못하면 죽이니, 의관이며 호위무관이며 그 밖에 아랫것들 죽은 것도 있고 병신된 것도 있느니라. 대궐에서 해루에도 죽음 사람 여럿을 쳐 낼 때가 있으니, 안팎으로 두려워 심히 말들이 많더라.”

<한중록>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울화증이 치밀어서 그렇습니다."

"왜 울화증이 치미는 것인가?"

"아바마마께서 소자를 사랑하지 않으시니 울화증이 생겨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이지 않고서는 속이 풀리지 않습니다!"

"....내 다신 그럴지 않으마."

부인에게, 어머니에게 버림받다.

"내 칼을 가져와서 아버지의 거처에 가서 아버지를 해치고 싶다." - 사도세자 -

아들을 죽이다.

"자결하라"



생각할 사思, 설위할 도悼

"이미 이 보고를 들은 후이니, 어찌 30년에 가까운 부자간의 은의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세손의 마음을 생각하고 대신의 뜻을 해아려 단지 그 호를 회복하고, 겸하여 시호를 사도세자라 한다." - 영조 -

어미가 죽일 것을 청하고, 아비가 죽이라 명하고, 장인이 앞장서서 집행한 이 사건의 진실에 완전히 접근하기란 어렵다. 영빈 이씨의 청은 <실록>에 실려 있지 않고, 과정을 생생히 기록한 <승정원일기>는 뒤에 세손의 청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대부터 지금까지 여러 설명과 해석이 있어왔는데, 가장 상세한 기록은 역시 <한중록>이다. <한중록>은 말한다. 왕과 세자는 일찍부터 떨어져 살아 부자의 정을 쓸지 못했고, 세자를 책임진 한 상궁이 무예보다 놀이 쪽으로 이끌어서 세자는 책보다 무예를 더 좋아해 왕의 실망을 샀다. 영조와 사도세자는 성격차도 뚜렸했다. 왕은 또한 호불호가 선명해서 좋아하는 자식들과 싫어하는 자식들을 대하는 태도가 극단적으로 달랐다. 걸핏하면 나무라고, 무안을 주고, 훈을 내어 세자는 병을 얻었고, 갈수록 심해져 사람을 쉽게 죽이는 등 위험한 지경에 이르자 죽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한중록>은 뒷날 친정아버지인 흥봉한이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해 진 혐의를 벗기려는 의도에서 집힐된 것이고 실제 사실 왜곡도 마다 않고 있어서 오늘날에 와서는 사료로서의 가치가 좀 평가절하된 모양이다. 현대의 정설은 세자가 당쟁의 희생양이라는 것이다. 경종을 모셨던 상궁의 밑에서 자라면서 세자는 큰아버지 경종과 소론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고, 대리 과정에서도 친소론 태도를 보임으로써 집권 노론에게 위기감을 안겨주었다는 것이다. 하여 노론은 세자의 낙마를 위해 왕과 세자의 사이를 적극적으로 이간질하여 그런 결과를 불렀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노론 대신 김상로와 노론과 손잡은 영조의 후궁 문씨와 그녀의 오라비, 노론 출신인 정순왕후와 그의 가문, 비록 세자의 장인이지만 골수 노론인 흥봉한까지 합세했고, 왕 또한 노론에 기울어졌기 때문에 쉽게 이간질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심지어 정순왕후가 이를 주도했다는 설명도 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한중록>의 설명에 미진함을 느낀 나머지 원인을 지나치게 정치적 환경으로 돌린 것은 아닐까? 물론 이런 논거를 뒷받침하는 기록들도 있긴 하다. 김상로와 문씨 남매가 이간질을 했다는 것, 조재호가 동궁 보호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제거된 것, 그리고 흥봉한이 적극 앞장선 것도 사실이니까.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먼저 정순왕후 중심 역할론부터 보자. 그녀가 대궐에 들어왔을 때는 고작 열다섯 살이었을 뿐 아니라 이때는 영조 35년으로 이미 왕과 세자 간의 문제가 충분히 불거진 상황이었다. 그리고 비극이 있던 3년 후에도 정순왕후와 그녀의 가문이 흥봉한의 가문에 버금갈 만큼 세력을 이루지 못했다. 세자가 친소론 평향의 태도를 보였다는 식의 해석도 지나친다. 앞서 보았듯이 말이 대리이지, 세자의 대리 영역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그마저도 거의 이런 결론으로 끝났다. ("애조께서 결정하신 일이오. 대조께 아뢰어 결정하겠소.") 이런 설명으로 근거를 대기도 한다. (영조 31년 윤지, 심정연의 옥사와 관련해 당시 판부사인 소론 이종성의 처벌을 청했지만 세자가 거절했지.) 하지만 그때도 세자는 이렇게 답했다. ("대조께서 이미 내리신 결정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사실 당시 왕의 태도는 오히려 그 일로 소론이 노론에 의해 일망타진되는 것을 경계했더랬다. <천의소감>의 일로 노론에게 당론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을 것이 바로 이때의 일임을 기억하자. 무엇보다도 비극 당시의 기본 정치구도가 노론-소론 대립을 벗어난 때였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론은 무너졌고 노론도 과거와는 달라져 있었다. (예전엔 산림의 영수가 주창하는 학설과 주장아래 뚱뚱 웅친 정파였다면 지금은 조정에서 힘을 얻은 자가 대장인 상황) 새로운 노론의 중심은 척신인 흥봉한이었다. 김상로는 흥봉한과는 달리 노론 정통 명가 출신. 만일 그가 세자를 이간질한 것이 사실이라면 '노론을 위해서' 라기보다는 '흥봉한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문녀 남매가 이간질했다는 이록도 <실록>과 <한중록>에 모두 있다. 그러나 김상로나 문녀의 일은 정조가 집권하고나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런데 과연 대리청정 13년 동안 김상로나 문씨 남매, 기타 노론의 이간질이 있거나 한걸까? 왕은 몇 달이 지나서 서명웅의 글을 보고서야 세자의 관서행을 알았다. 조정 신하들이 모두 알고, 유생들까지 알았던 일을 어째서 왕만 몰랐을까? 모른 척 했던걸까? 왕이 알까 봐 세자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 것 등을 미루어보건 대 왕이 그때까지 몰랐던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참 이상도 하다. 왜

이른바 이간질의 주인공들은 이런 정보를 왕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없는 사실을 지어낼 필요도 없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아뢰기만 해도 엄청난 이간질 효과를 거둘 텐데, 왜 그 많은 노론 신하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었을까? 나경언의 고변이 있었을 때의 왕이 질타를 보라. ("오늘 조정의 신하들은 모두 죄인이다. 내게 고한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부끄럽지 않은가?") 그랬다. 신하들은 이간질은 고사하고 세자의 비행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왜? 미래의 임금이니까! 영조 32년, 지평 이휘중이 상서해 세자를 비판하자 왕은 칭찬하고 상을 내렸다. 그러나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았다. 이후 신하들은 같은 이유로 칭찬 받는 것을 꺼려했다. 그랬기에 밖에서 기녀를 불러오고 밤새워 잔치하고 시전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다 흥청거려도, 심지어 살인을 했다는 정보를 접하고도 누구 하나 나서서 왕에게 고하지 않은 것이다. 이쯤 되면 비극의 기본 요인 다른 데서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비극의 기본 요인은 결국 왕과 세자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다. 왕에게 하늘이 내린 선물이었던 세자였는데 왜 그렇게 어긋나버렸을까? 세손과의 관계에서는 단 한 번도 질책을 하거나 면박을 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물론 세손이 모범적인 데다 빼어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세자에게는 정도 이상으로 야단치고 면박을 주었다. 성격 차이와 책보다 무예를 더 좋아하는 기질에 대한 실망도 컸다지만, 둘은 무엇보다도 궁합이 맞지 않았던 듯하다. 좋아하는 자식과 싫어하는 자식으로 칼로 자르듯 나누어 자식들을 대했던 왕 영조, 세자는 싫어하는 자식이었다. 미움과 멸시가 가득 담긴 질책이 반복되면 세자에게 두려움은 일상이 되었다. 더군다나 자신의 정치적 필요를 위해 벌이는 선위 소동 등 정치적 돌발 행동 그럴 때마다 엎드려 대죄하며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이마를 땅에 짚어 피 흘린 적이 몇 번이던가? 세자에게 왕은 왕일 뿐, 아버지가 아니었다. 세자는 당당한 체구에 위엄있는 눈빛과 목소리까지 갖춰 처음 대리청정을 할 때는 신하들로 하여금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게 했던 세자다. 그랬던 세자가 발걸음 소리에 떨고 왕이 온다는 소리에 잠을 못 이루는 세자가 되고 말았다. 이런 모습은 왕을 더욱 실망시켰으리라. 왕은 자신이 어렵게 이룬 정치적 안정, 튼튼한 왕권을 유지해나갈 후계자를 원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한 세자는 가능하면 피하는 것으로 부왕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 했다. 세자는 유희에 열중했다. 현실도피다. 그러나 이런 행태는 두려움을 잠시 잊게 해주는 마약 같은 것. 잔치를 파하고 나면 두려움은生生히 현실로 되살아났으리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 아무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곳, 자신이 주인인 세자궁에서 히스테릭한 독재자가 되어갔다. 별 것 아닌 일로 칼을 휘둘렀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내관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게도 했다. 왕의 기대와는 비록 달랐지만, 나름의 장점은 많고 큰 흠은 없던 세자는 왕의 지나친 질책으로 인해 결격 사유가 큰 세자로 바뀌고 말았다. 1차적인 책임은 물론 괴팍한 아비인 왕에게 있다 하겠지만 세자에게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는 미래가 보장된 세자, 서럽고 두렵더라도 최대한 책잡하기를 피하는 길로 갈 수는 없었을까? 서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얼굴 보기 싫어도 임금이자 어버이므로 오지 말라 해도 악착같이 찾아가 인사하고 야단을 치면 야단을 맞고, 매를 치면 매를 맞고....그렇게 명분을 축적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2인자의 길이 아닌가? 도저히 자신과 맞지 않고 기대에 어긋나는 세자, 이제 심각한 결격 사유까지 갖게 된 세자, 그러나 왕에게는 사실 대안이 없었다. 무섭게 야단쳤다가도 대안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스려 칭찬하는 모습도 제법 보였더랬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던 후계자감이 나타나고 말았다. 세손! 뒷날의 정조다. 왕은 세자가 실망스러울수록 세손이 예뻤다. 세자의 관서행을 알게 된 직후 했던 이 말은 ("삼백년 종사를 이을 사람은 곧 세손이다!") 이미 세자를 향한 경고 차원이 아니라 왕의 진심심을 세자 또한 느꼈다. 다음은 <한중록>의 기록이다. ("세손을 귀히 여기시는데 내가 없다 한들 세손이 있는데 크게 상관하시겠는가? 자네는 모르네 나를 폐하고 세손을 효장세자의 양자로 삼으시면 어찌겠는가? 두고 보소. 자네는 귀여워 하시니 별 일 없을 걸세. 나만...병이 이러하니 어찌 살게 하시겠는가?") 세자의 염려는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비극 발생의 시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손은 이미 가례를 마쳤고, 열한 살의 나이다. 형식상 준 어른이고 실제로도 몇 년만

뒤를 봐준다면 승계하는 데 무리 없는 나이라 할 수 있다. 세자조차 느낄 수 있는 일을 정치 프로인 신하들이 감지하지 못했을까? 사실 신하들에게도 세자는 위험한 미래였으리라. ("무예나 놀기를 좋아하시는거야 그렇다 쳐도 폭발하면 칼을 휘두르는 임금이라면 곤란하잖아.") 신하들로서는 속수무책이었지만 임금의 마음이 세자를 떠났다면 다르다. 왕은 세자 제거를 결심한 뒤 흥봉한 등에게 장황하게 자신의 뜻을 전달했고 이례 흥봉한이 집행에 나섰다. 그 역시 세자로는 안된다고 본 것이다. 세자만 제거하고 세손은 보전해 후계로 삼는 데 왕과 흥봉한, 나아가 신하들의 이해가 일치했다. 사실 와과 신하들의 1차적인 희망은 세손으로서의 후계 교체였으나 그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폐세자를 끝내고 세손이 왕위를 잊게 되면 어찌 될까? (폐세자를 하게 되면 폐세자에 동조했던 우리(신하들)은 살아남지 못한다.) 따라서 세자 교체의 현실적인 길은 세자의 존재 자체를 지우는 데 있다 할 것이다. 국본인 세자를 죽이려면 단 한가지 이유, 역모나 그에 준하는 행위뿐이다. 세자의 관서행을 역모를 위한 행보로 보는 해석이 꽤 지지를 얻고 있는데, 만일 그랬다면 세자의 비극은 관서행을 아기 된 그때 일어났어야 하지 않을까? 관서행을 알게 된 후 왕의 태도는 의외로 담담했다. 담담함의 의미는 상당 기간 생각해오던 일을 드디어 결심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관서행을 단순한 유람이었기에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었다. 나경언의 고변이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었는데 친국 과정에서 나경언은 동궁을 무고한 것이라 진술하면서 한 발 빼고 만다. 결국 명분을 충족시켜준 것은 영빈의 고발이다. 영빈의 고발을 듣고 실행할 결심을 굳힌 왕은 흥봉한 등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직접 말하기 어려운 위태로움이 경각에 닥치게 되었으니 진실로 두렵도다. 혹 정리에 구애되어 참고 견디었다가 변란이 일어나게 된다면 신민들이 장차 병과 광기의 소치라 하여 용납하겠는가? 용납하지 못한다면 장차 어느 지경에 이르겠는가? 삼종의 혈맹을 보전하지 못할 것이요, 400년 종사는 또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변란의 기미는 이미 급박하고 위태로운 염려에 극에 달했으니 부득이 만고에 없던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 변란 등 살벌한 표현이 거듭 나오지만, 군사적 변란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 전날 갑자기 유언비어가 비등했다는 기록, <한중록>에 묘사된 세자의 히스테릭한 행동과 말, 그날 영빈 이씨가 혜경궁에게 보낸 편지와 왕에게 고한 말, 그리고 위의 왕의 발언 등으로 보건데 그 전날 극도의 히스테리를 부린 세자의 발언은 이런 내용이었지 싶다. ("아비도 아냐. 내 오늘 저 늙은이를 죽여버릴테다. 세손도 필요 없어. 내 아들도 아냐. 어떻게 아비와 아들이 나를 궁지로 몰 수 있어? 오늘 다 죽을 줄 알라고!") 이러한 말들로 갑자기 궐 안에 흉흉한 말들이 돌았고, 소식을 접한 영빈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세자가 저러다가 역적으로 죽게 되면 어미인 나도 며느리도 손자도 모두 어려워질터) 어쩌면 세자의 행동을 빌미로 영빈에게 그런 역할을 맡겼을지도 모를 일. 그날의 일이 일시적 분노로 행한 것이 아님을 뒤주에 가둔 8일 동안 일체 관심을 보이지 않은 데서 확인된다. 다행질의 성미지만 그 속은 얼음처럼 냉정한 군주 영조, 결심한대로 계획한대로 집행한 것이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도세자란 시호(생각할 사, 슬퍼할 도)를 내린 것을 '곧바로 후회'한 것으로 해석하지만, 이는 세손을 역적의 아들로 만들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 사실 이 사건의 명분은 매우 절묘하다. 생모의 입을 빌려 불가피성을 내보이고 변란을 꾀하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 제거 명분을 확보하면서 세자 개인의 병에 의한 광기의 탓으로 돌려 진짜 역모는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 세자가 제거되어서 세손이 승계한 것이 아니라, 세손의 승계를 위해 세자가 제거된 것이다.

출처 :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사도세자의 비극>